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은혜와 진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4-18절 (Tag:)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1:14-18)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은 석유가 고갈되면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없으면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연주의자 혹은 환경론자들도 있다.

또는 율법이 문제라는 사람, 제도가 문제라는 사람, 도덕이 문제라는 사람, 테크놀리지가 문제라는 사람, 법률이 문제라는 사람 등등...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다. 문제이긴 하나 핵심 문제는 아니라는 것.

사람이 결정한다. 나무를 땔 것인지, 석탄을 땔 것인지, 석유를 땔 것인지, 우라늄을 분열시킬 것인지, 수소를 융합할 것인지, 태양열을

이용할 것인지는 사람이 결정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조개 껍데기를 이용할 것인지, 금이나 은덩어리를 이용할 것인지, 화폐를 이용할 것인지, 주식을 이용할 것인지, 금융산업을 이용할 것인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인지, 배리칩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핵심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이 문제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잘 통치하고 계신다. 유독히 사람만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세상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들이 쌓아놓은 죄악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도구가 자연재해나 일월성신일 뿐이다. 즉,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려서 결국 세상이 그 훼손의 정도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 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재앙은 죄악이 관영해서이지, 세상이 망가져서가 아니다.

노아의 홍수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의인을 찾으신다. 이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된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으로 그 심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그 삶이 경건하고 의로운 성령으로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성화된 자)

이때의 핵심 정신이 은혜와 진리이다.

예수님은 이땅에 정권을 잡으려고 오시지 않았다. 법이나 제도를 고치거나, 문화와 문명을 계몽하거나, 기술향상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금융산업을 통한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하려고 오시지

않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에게도 평등한 민주주의 세계를 만들려 오시지도 않았다. 물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나름대로 그 방면에 정확한 지식과 지향성을 지니셨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영혼이 핵심 관심사였다.

사람은 모름지기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영생이 귀한 것을 안다.

오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을 뜻함. ->우리 가운데 거하심. 成肉身(incarnation)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 하나님과 DNA가 동일하심.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 ->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오심.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결코 없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런데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심.

우리에게 진리가 임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심.

그러나 은혜를 강조하다보니, 못 값아주실 빛이 없고, 용서하지 못

할 죄가 없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모조리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속죄이고, 엄청난 황재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접하지도, 알지도, 스스로 탐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은혜의 목적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은혜의 목적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가리거나, 물어버리거나, 기능을 정지 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지불해야 할 계산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은혜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은혜의 목적은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진리를 행하게 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성인이 되는 것, 세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치게 되는 것, 무엇이 참된 가치이며 목표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 곧 은혜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요한의 증거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1:14-18)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탕감이다! 무한정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값싼 회개가 엄청난 죄값을 탕감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며 일본식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이고 가치인가? 결코 아니다.

은혜의 목적은 진리에 있다. 십자가의 목적은 진리에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은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쓸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정을 게으름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을 기뻐 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바꾸지 말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질과 성격 **성경:** 로마서 6장 11-18절
(Tag:제자훈련,성질,성격,성품,예수님의성품,신약성경,로마서)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롬 6:11-18)

1. 성질과 성격의 이해

죄의 본성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채 드러나는 것이 성질.

성격은 양육을 통해서 발달되고 순화된 성질.

경건생활이 성격발달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기독교적 성품기준론은 기독교의 진정성은 거룩한 성품에 기반한다는 이론이다.

2. 성품(진짜 자기 자신, 진정성)의 분별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비관하거나 차별 목적이 아닌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성품을 분별하라. (분별의 목적은 영혼의 가치를 위함임. 그 다음이 일을 맡기기 위함.)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라.(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함. 사실여부가 중요함. 능력과 신용이 중요함.)

3. 성품 분별의 위험한 함정

성품을 분별하는 당사자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성품 기준 의식은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분별하였을 경우 그를 향한 차별이나 무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일과 신용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빨리 대비해야 한다.

4. 기독교적 성품론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사랑과 진리, 영성, 지성, 감성, 권위, 섬김, 희생.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전13)

베드로의 권면(벧후1:5-7);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